

“당신은 저 먼 산마을을 아는가”

임길택詩集 「탄광마을 아이들」

“당신은 저 먼 산마을을 아십니까”

언뜻 이런 부제가 붙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쉽게 체득하기 어려운 공간을 보여주는 임길택의 시집 「탄광마을 아이들」(실천문학사). 이전에 이오덕의 「일하는 아이들」이란 시선이 있었지만 여기 말해지는 마을은 외향부터가 까맣고 턱없이 높은 산비탈 뒤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없이 깊은 땅속을 헤집어들어가는 일로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애위자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결 긴장감·황량감을 띠게 된다.

안보야도 뻥한 이야기들, 가령 대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폐광업체가 속출하고 여기에 생계를 의지했던 삶의 떠남과 규제 등 절벽에 허물어진 피폐한 삶의 이야기가 개재됐을 것이라 보이지만, 첫장을 넘기면서 흠뻑한 고발의 목청도 정연한 논리를 앞세운 가열한 꾀도 보이지 않으므로써 우리의 경솔한 추측을 일순 허물고 만다. 분명 끈고한 삶에 비취 미덕이라고 할 만큼 그것은 낮은 말성법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어처구니없이 사소한 주변의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있는데, 실은 여기서 話者로 나서는 인물이 어린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이 시가 노리는 메시지가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님을 알아챌 것이다.

그 미덕, 가령 시인이 화자로 내세운 어린이의 시선은 성인의 거시적 안목에는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래 유독 검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비탈에 기대선 저들의 事象을 중의적으로 드러내는 데 요긴한 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버지를 죽이면서 / 우리 식구 / 살아간대요” “아버지 손가락을 / 두 개나 잘라내야 하던 날” “그 아드님 / 떨어지는 돌에 머리를

맞고 / 정신병원에 들어간 지 2년” 등의 시구만을 놓고보면, 처참한 삶에 너무 일찍 골몰한 나머지 머리 위에 여전히 빛나는 태양, 푸른 하늘을 잇고 있는 듯 비쳐지지만 그 팽팽한 현실의 풍경 너머에 대한 훨씬 다채로운 꿈과 정이 어지러이 수놓여져 있음을 알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童心은 어느 곳에서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주위 어느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으므로 이 시인이 말해보이는 대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다양함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읽히는 데는 하등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모순된 것이라 해도 시인은 은밀하게 이 세계 내에 따스하게 서려있는 인간애를 놓치지 말 것을 다짐해주는 것이다.

산문시적 분위기를 통한 발화법에다 메시지의 직선적 주입 등 시의 숨은뜻을 헤치는 결점은 앞으로 이 시인이 넘어야 할 과제로 보이지만 저 도회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할 건강한 어린이들의 입과 눈을 통해 우리시대의 소외공간을 정갈스럽게 발라내 꾸밈없이 들려주고 있음은 그런 결점을 넘어서고 있는 장점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흡입력은 이 시들이 전적으로 시인 자신의 체형 자체에 기대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최금주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141-208 · 주부

南阿共 흑인들의 외로운 별

「넬슨 만델라의 삶과 투쟁」

이 책은 위니 만델라의 자서전적 작품으로 위니 만델라 및 주변 인물과의 인터뷰, 넬슨 만델라가 위니에게 쓴 편지, 그리고 그녀 자신의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위니’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평범한 여인이 투사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남아공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위니는 어렸을 때, 시골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아버지를 통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의 진실된 역사를 약간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백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백인교사들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의 옷차림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어렸기에 화까지 내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난 마음 속으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였다. 비록 아홉번의 쇼자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손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백인이 우리에게서 훔쳐간 나라를 다시 빼앗아 오고야 말리라.”

어렸을 때 이미 가슴속에 담아둔 위니의 이러한 분노들은 넬슨을 만남으로써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넬슨과의 결혼은 그녀로 하여금 주체적인 한 인간이기보다는 만델라의 부인으로서 넬슨의 그림자이자 정치적 장식품으로 더욱 부각되고, 그녀 자신의 인식 수준도 투사이기보다는 아이들의 어머니, 한 남자의 아내로서 더욱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데 넬슨이 리보니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자, 정치적 의미에서 갑자기 여론의 초점이 되고 더이상 만델라의 부인만은 아닌, 그녀 자신의

의지를 지닌 한 인격체로서 대중 앞에 서게 된다. 그 이후 20여년에 이르는 연금 → 투옥 → 연금의 반복 속에서 위니는 反아라파트의 대명사로서 곳곳이 서게 된다.

이 책은 인물 중심의 여느 자서전과는 달리 ‘만델라’로 대표되는 인종차별에 대한 남아공 흑인들의 투쟁, 대다수가 흑인이면서도 거의 한세기를 지배받아왔고, 지금도 족쇄만 차지 않은 노예의 삶을 강요당해야 하는 남아공 흑인들의 현실들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인종차별은 한 민족의 말살을 의미한다. 흑인들은 자기들의 사슬이 금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백인들의 국회에 앉아있는 흑인에 의해서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있다. 흑인들은 사슬이 금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으로든 다른 어느 것으로든 바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선

경북 포항시 우원동 205-2 유성여자고등학교 · 교사

우리시대의 작가 2
정형남
장편소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달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아십니까.
부르짖는 목소리에서 울부짖는 뇌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적이 있습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사설타령'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 생활 속에 눈물과 웃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값 3,800원

神의 이름으로 되묻는 삶의 의문

이승우 장편소설 「에리직톤의 초상」

우리가 사는 시대는 '神의 이야기'가 넘쳐 흐르고 있다. 기독교나 불교같이 다원적이며 폭넓은 세계관을 가진 조직적인 고등종교들이 말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求福의 인냄새가 짙은 토속 샤머니즘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까지, 참으로 우리는 많은 神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듣고 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만의 神의 형태를 마음속에 품고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神의 이야기는 우리가 논할 영원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에리직톤의 초상」(살림)은 “이 시대 보편화된 신에 대한 의문”들을 체계적이며 정선된 언어로 정리하여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여겨진다.

작가의 데뷔작인 중편 「에리직톤의 초상」과 근래에 발표된 「에리직톤의 초상·2」를 묶어서 에리하고도 짜임새있는 주제로 연결시켜 새롭게 탄생시킨 이 작품을 작가가 다른 작품들 — 「못」이라든가 「고산지대」 등 — 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에 관한 물음들을 신의 이름으로 되묻는 작업”을 한번 더 맛보게 해주는 기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었다.

나 역시 종교인으로서 “신에게 솔직히” 물어야 하고, 의문점들을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들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었다.

'해명'이 거듭해야 했던 신을 향한 술한 방향의 날들, 아버지로서, 또한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 방향을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정교수, 이 모든 것을 제3자적 위치에서 바라보면 서 독자를 향해 적어도 걸은 듯한 어조로

말하는 병욱 — 이런 인물들을 저자는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신에 대한 의문'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며 아울러 이 의문들을 해결해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형석'이 서독에서 '병욱'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작가 자신이 고민하며 절대적으로 매달렸던 문제들이 잘 정선되어 틈틈이 박혀 있다는 걸 어렵잖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 소설이 가지는 의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에서 시도되었던 신에 대한 양극화적인 물음들을 비교적 가까이 접근시켜 제3의 길을 모색했다는 데 있다.

플롯상의 문제가 약간 보인다고 여겨지지만 무게있고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의 배경은 이를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아지며 1부와 2부가 추구하고 있는 시도들이 독립된 것으로 서로 발전되어 나가면서도 무리 없는 통일성을 보여준다.

신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이며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신의 문제를 안고 해결하지 못한 갈등속을 지나가는 이땅의 젊은 지성들이 한번 정도 읽어볼 만한 글이 되리라는 걸 믿는다.

김신웅

부산시 중구 대청동 2가 2번지 5-4 신광사진관

흔들리지 않는 산을 향한 행보

남난희 태백산맥종주기 「하얀 능선에 서면」

눈으로 덮여 주변이며 세상이 온통 하얗게 빛나는 이른 아침, 자신이 태백산맥의 어느 한 줄기 능선에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 마치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나올 듯한 감탄사와 흰 눈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눈부실 것 같지 않은가? 어느 영화의 주인공 공처럼 눈더미 속에 덩굴며 눈을 문쳐 입에 넣으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상상이므로 아름다울 수 있다. 현실세계에는 30kg이 넘는 짐과 잦은 바람, 추위가 있고 때로는 무릎이, 심하면 허리까지 파묻히는 험한 행보가 펼쳐져 있을 뿐이다. 거기에 덧붙여 피할 수 없는 고독, 외로움도 있게 된다.

남난희의 태백산맥종주기 「하얀 능선에 서면」(수문출판사)은 84년 1월1일 부산 금정산에서 시작하여 3월16일 진부령에 도착하기까지의 76일간의 대장정,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산과 투쟁한, 아니 자신과의 싸움을 치루어낸 한 여성산악인의 기록을 담고 있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온전히 혼자인 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후원단체가 붙여준 '국토의 맥과 얼을 찾아서' 등등의 이유와 명목들은 산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깨어져버리고 그에게는 인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이 여과되어 남게 되었다.

태백의 줄기 속에서 앞서 간 다른 이들의 표지를 만나거나, 뒷에 걸린 토끼와 마주칠 때 그는 인간에 대한 상반된 감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자신이 “산에 겸손하고 산을 닮고자”하는 작은 인간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산이 보여주는 내밀한 풍경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내 좋은 사람들과 모두

모여 보고 싶다. ... 누구라도 좋다. 지금 당장 옆에만 있어 준다면”하고 소리치는 사회적 존재로 나아간다. 그러기에 그는 큰소리로 “라텐('등불'이라는 뜻. 국토순례회가 정한 예코)”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등불을 밝히고 그를 기다려 주기를, 그의 짐을 나누어 지기를 바라듯이 말이다.

그의 단독등반은 결코 '단독'등반이 아니었다. 헌신적인 지원대의 보급과 도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의 깨달음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눈이 와도 나는 좋아하지 않으리라... 눈발미를 할지 모르겠다. 산발미를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산애기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던 그가 이 책의 끝부분에서는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나는 다시 배낭을 메고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어쩌면 태백산맥이 끊어진 북쪽의 산맥들에 대한 그리움을 그를 통해 드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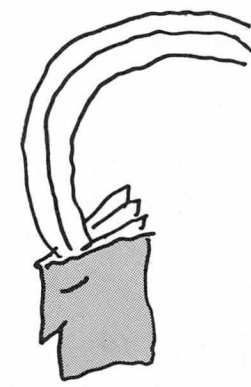
정소진

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806-9 · 학생

KBS 제1라디오 방송수필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할때”
양상민 외

“미세한 물방울이 맑지를 않고 흐르면 무지개가 되지 않는다. 「아침무지개가 말을 할때」의 이 수필집은 맑은 물방울이 모여 흰색깔을 7색의 무지개로 바꾸려는 뜻들이 모인 하늘이라 하겠다. 그것은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처나고 어지럽고 흐린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깨끗하고 꿈이 서리는 아름다운 말들이라 하겠습니까.”
—서정범 교수 (한국수필주간) 머릿말중에서—



「人生」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물음 앞에... 어린 가슴엔 꿈과 낭만의 무지개로, 삶을 돌이키는 이들에겐 어린 그리움의 무지개가 되어 誠實히 삶의 진솔함을 노래한다. 달팽이·하루살이·바위·침과 등나무·술·흙·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를 들려준다. 끝내 얼굴을 숨기기를 고집한 KBS 수필문학문인들이 特別남도 아닌 우리들의 숨결같은 생활 곳곳의 진솔한 삶을 정성스레 모아 가난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영롱한 진리의 아침 무지개로 피어 아름다운 삶의 색으로 남고자 한다.
●KBS 제1라디오 「오늘을 생각한다」에 매일밤 11:30~11:50까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신국판/194쪽/값 3,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림기획
275-5296 · 6295